

케네디 대통령 추모 연주회 (A Tribute to John F. Kennedy)

모짜르트 • 진혼 미사곡

(W.A. MOZART • REQUIEM)

1964년 1월 19일, 보스톤시는 홀리크로스 성당(Cathedral of the Holy Cross)에서 모짜르트의 진혼 미사곡의 연주회를 주최하여 쓰러진 보스톤의 아들 JOHN FITZGERALD KENNEDY에 경의를 표하였다.

오셔서 그 50주년 기념 연주회에 함께 참여 하시기를 초청합니다.



일요일 • 1월 19일 • 오후 3:00시
홀리크로스 성당 (Cathedral of the Holy Cross)
1400 Washington Street, Boston, MA 02118

입장 무료. 우선도착, 우선착석



“과거를 통해, 우리는 불확실한 장래에 확신을 갖고 대처할 수 있는 직관력, 지혜,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케네디 대통령의 링컨 게티스버그 연설 100주년 기념연설, 1963년 11월 19일, 그의 서거 3일전.

50주년을 맞이하여 케네디의 리더십이 대표했던, 미국과 전세계를 위한 문화와 경제적 진보의 정신을 기념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 이러한 진보적 정신을 갖고, 케네디 대통령은 당시 미국과 전세계가 직면했던 세계대전, 빈곤, 인류타락의 위협적인 정황을 극복하기 위해 도전했다. 지난 수십년에 걸쳐 인류와 전세계의 존재를 위협하는 급박한 상황들이 전개되었고, 이러한 위협에 대한 도전을 기꺼이 포용하고 달(moon)을 정복한 미국 국민의 진보적 의지는, 인간의 존엄과 창조력을 경시하는 기질을 가진 이들에 의해 약화되고, 밀려나게 되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짜르트(Wolfgang Amadeus Mozart)의 작품은 낙관주의와 인간의 무궁한 진보에 대한 믿음을 묘사하고 있으므로, 모짜르트의 *진혼 미사곡*은 인류의 진보에 그의 생명을 바친 케네디 대통령의 추모에 아주 적합하다고 할수있다. 케네디의 시대를 특색지었던 낙관주의의 불꽃은, 어느정도 수그러 지긴 했지만, 아직도 우리들 가슴에 살아 있다. 왜냐하면, 이 낙관주의의 불꽃은 나라설립 초부터 미국 국가조직의 뼈대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가 어떠했는지, 과거가 어떠할 수 있었는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문화가 변했는지, 또한 현재에 어떻게 우리가 이 문화와 경제적 진보의 정신을 부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숙고하며 함께 케네디 대통령을 추모하고자 한다.

이 콘서트는 실러 인스티튜트 합창단과 실러 인스티튜트가 이 연주회를 위해 조직한 오케스트라와 단독 연주자들(soloists)에 의해 공연된다. 연주는 본위의(natural) “베르디 튜닝(Verdi tuning)” A=432 Hz 악절로 행해진다.

실러 인스티튜트(The Schiller Institute)는 1984년 미국의 정치가이며 경제학자인 린든 라루쉬(Lyndon LaRouche)의 부인 헬가 켈-라루쉬(Helga Zepp-LaRouche)에 의해 설립되었다. 설립 목적은 고전문화(Classical culture)의 패러다임을 부활하고 전인류의 물질적, 도덕적, 그리고 지적 진보를 향한 권리를 재선언 하는데 두고 있다. 그 명칭은 “자유의 시인”으로 불리는 프레데릭 실러(Friedrich Schiller)의 이름을 따라 지은 것이다. 실러의 시 “오드 투 조이(Ode to Joy)”는 베토벤의 제 9 교향곡에 의해 불멸화 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For more information, call (617)-340-6544

Email: requiemconcert@schillerinstitute.org